후손 끊겼나 조상 모실 돈 없나…'민망한 성묘길'

광주 망월묘지·영락공원 밀린 관리비 10억원

묘역 입구 등에 납부 안내 간판·현수막 걸려

광주 망월묘지공원 및 영락공원 등 광주 시립묘지의 관리비 체납액이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과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조상 묘를 돌보지 않는 후손들이 부쩍 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절을 앞두고 우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10일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망월 묘지·영락 공원 등 2곳의 시립 묘지 관리비 체납액은 각각 8억6400만원과 9200만 원으로 9억5600만원에 달했다.

전체 묘지 1만8567기 중 1만2589기가 안장된 영락 공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매년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400만원까지 묘지 관리비가 체납돼 있는 실정이다.

망월 묘지도 비슷하다. 4만1000기 중 3만7537기가 안장돼 있지만 해마다 5000만원 이상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망월 묘지는 지난 1999년부터 (재)광주무등묘원이 위탁, 관리해오다 지난 2011년 4월 11일부터 광주시도시공사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도시공사측은 묘지 관리비 미납률의 경우 영락 공원이 14.7%, 망월 묘지가 41.1%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시공사 측은 애초 관리비 납부 의무를 안고 있는 안장 신청자가 사망했거나 주거지를 옮기면서 묘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게 관리비 체납의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실제 안장 신청자가 사망, 후손들이 묘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시공사는 각 묘역 입구 등에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안내 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관리비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해마다 두 차례 이상 묘지 신청자 주소지로 납부 안내문을 보내는 등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일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묘역 입구에 관리비 자진납부를 요구하는 안내 간판이 설치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영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비를 거둬 벌초·잡초제거·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으로 쓰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고 있지만 관리비를 안 냈다고 해서 해당 묘만 벌초를 안 해 줄 순 없지 않느냐. 후손들이 관심을 갖고 자진납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도시공사는 광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9년부터 한 기당 5년에 3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했으며 2004년부터는 5만원으로 올려 받고 있다.

매장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한 시민 또는 외국인 등이다. 매장 신청은 매장 전날 예약 신청을 한 뒤 주민등록등초본·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아닐 땐 주민등록등초본·검사지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귀태' 압수수색 광주북부경찰이 10일 귀태(鬼胎) 현수막을 게재하고 을지연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 북구청 공무원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방관들 '개고생?'

개·고양이 구하러 하루 평균 127차례 출동 … 광주·전남도 올 1532건

인명구조 업무 공백 불가피

올해 동물 구조를 위해 광주·전남 소방관들이 1500여 차례나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119 동물구조 현장 출동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동물 구조를 위해 출동한 사례는 올해 7월까지 10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444 차례 출동했다. 전국 소방관들이 이렇게 출동한 경우만 올해 2만6776건, 하루 평균 127회에 달했다.

전남 지역 동물 구조를 위한 출동 건수는 2011년 1796건, 2012년 1867건으로 증가 추세다.

119 구조대가 긴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동물 구조를 위해 출동할 때 투입되는 소방 인력과 시간 및 인건비·유류비 등을 고려하면 비(非)응급 동물구조 출동으로 빚어질 수 있는 본연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안경찰'

북구·광산구청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 공안몰이

경찰이 북구청과 광산구청 노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공안 정국'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북부·광산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북구·광산구 노조사무실과 환경과·도시개발과·총무과 등 노조 간부 소속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유인물과 현수막 제작 과정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이 주고받은 메일·쪽지 내용 등을 집중 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을지연습 기간 중 북구·광산구 공무원노조가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북구 공무원 노조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었던 '귀태'(鬼胎) 현수막을 내걸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을지연습 문제점을 지적한 유인물이 올해만 배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이 '공안 정국 조성'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종북세력의 내란음모 등 활동과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의식 제고'를 주제로 한 경찰관 안보특강을 한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농약 광역방제기 보조금 31억 부당수령 45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대형 농약살포기인 광역방제기 매매 과정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1)씨 등 45명을 입건했다.

모 농협 조합장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월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판매업자와 짜고 1억7200만원짜리 매매계약을 한 뒤 자부담금 7200만원을 낸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부담금을 업체에 이체해 근거를 남기고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농협·농업법인 관계자들은 2008~2011년 광역방제기 24대를 사들이면서 자부담금을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1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판매 업체 2곳은 13대와 11대를 함평(6대), 무안·영광·곡성·장흥(각각 4대), 장성·진도(각각 1대) 등 7개 군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농로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100m까지 분사할 수 있는 광역방제기는 제조·판매업체가 3곳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함평 주택가 골목길서 30대 女 흉기찔려 숨져

10일 오후 3시30분께 함평군 함평읍 주택가 골목길에서 유모(여·33)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발견 당시 유씨는 가슴과 옆구리 등 5곳에 예리한 상처가 난 채로 발견됐으며,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웃 주민 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씨와 과거 연인 사이었던 A(42)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부인 폭행' 류시원 700만원 벌금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씨가 벌금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류씨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원나잇 男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쌍나팔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여성을 협박한 20대가 경찰서행.

○…1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28)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여·28)씨와 성관계를 맺고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첫 만남 이후 A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원하지 않고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김씨가 삭제한 동영상 복원을 거쳐 처벌하겠다는 방침.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제11회 전라남도 서예전람회 입상자

■**대 상** : 김옥례
■**최우수상** : 조일순
■**우 수 상** : 김용빈, 박옥란, 백준선, 심은경, 윤소현, 정윤숙, 홍순강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전남지회(지회장 정여춘)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여수시가 후원한 제11회 전라남도 서예전람회는 942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대상 1명, 최우수상(이사장상) 1명, 우수상 7명, 특선 121명, 입선 298명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행초로 정도전 선생의 시를 쓴 여수시 문수동 김옥례씨(여 44)가 차지하였고, 최우수상 조일순씨(여수), 우수상 박옥란씨(순천), 홍순강씨(무안), 김용빈씨(고흥), 심은경씨(여수), 윤소현씨(영암), 백준선씨(보성), 정윤숙씨(광양)가 각각 차지하였다. 입상자 시상식은 2013년 10월 26일(토) 오후 2시 전남대학교 여수 국동캠퍼스 아트홀에서 갖게 되며 전시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같은 장소 아트홀에서 하게 된다.
운영위원, 심사위원,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 회 장** : 정여춘
■**운영위원장** : 최승수
■**운 영 위 원** : 정여춘, 김용한, 홍은옥, 정철수, 송완훈
■**심사위원장** : 최동석
■**심 사 위 원** : 송전석, 김상회, 신수일, 이해근, 오혜남, 박수인, 임옥봉, 장신모, 양동주, 황재현, 강신국, 이봉준, 고석주, 송영구, 고택철, 김광례, 이영복, 박종민, 김용득, 김치성, 송정기, 신채식

■**대 상** : 김옥례(행초)
■**최우수상** : 조일순(예서)
■**우 수 상** : 김용빈(행초), 박옥란(예서), 백준선(행초), 심은경(해서), 윤소현(행초서), 정윤숙(행초), 홍순강(예서)

■**특 선** :
[**한 글**] 이정주
[**전 서**] 김석재, 김영자, 김향자, 박승학, 이혜영, 조영곤
[**예 서**] 강덕원, 김영중, 김의송, 김형우, 남문석, 남희수, 마봉심, 문상일, 박인규, 박점옥, 박형선, 백병호, 부기원, 양경행, 유영곤, 윤수근, 윤숙희, 이봉의, 이윤행, 장영호, 장정학, 장형대, 전근배, 정안남, 조춘남, 최옥자, 최용주, 한경조
[**해 서**] 김덕철, 김문삼, 김석진, 김희석, 성윤옥, 송성모, 송재권, 안장호, 이윤수, 이자승, 임석락, 정덕순, 정종두, 정희준, 조철문, 홍성자
[**행초서**] 강길주, 고민정, 권순오, 김병옥, 김영순, 김용득, 김용철, 김인섭, 김인환, 김재표, 김종선, 김준영, 김평석, 김호규, 김화선, 나종석, 남두만, 류재희, 류택승, 박공재, 박병호, 박윤진, 박정수, 박정일, 박종민, 박찬종, 박 헌, 백학기, 봉만종, 서경종, 서영태, 서창환, 신동열, 신봉석, 신정기, 신춘식, 신충우, 안규신, 안남순, 안병진, 안인식, 엄안순, 오우탁, 우장수, 유송학, 이경열, 이미도자, 이병문, 이상남, 이현모, 임정남, 장영환, 전관홍, 전생자, 정경식, 정상윤, 정선탁, 최남호, 최미숙, 최 병, 최상칠, 최재원, 최종열, 추무영, 한연상, 한창석, 홍천의, 황문자, 황청묵
[**문인화**] 기행승

■**입 선** :
[**한 글**] 김영희, 박명이, 소정웅, 송미진, 최현순
[**전 서**] 강 민, 곽미숙, 권문옥, 나화경, 문영민, 문철현, 박동현, 박미연, 박숙자, 박찬원, 신용재, 윤정란, 이명희, 이용윤, 장성숙, 정정남, 허경희, 황광숙
[**예 서**] 김경남, 김방열, 김영양, 김외자, 김용웅, 김이순, 김중요, 김형배, 류숙희, 박기식, 박석규, 박정업, 박청자, 서종엽, 서 청, 성진환, 손영길, 송영구, 심길구, 안이덕, 양병호, 윤정부, 이동녕, 이봉의, 이오수, 이유자, 이지수, 임봉화, 장경철, 장영심, 정기택, 정은영, 조신옥, 조홍락, 지양일, 최임실, 홍명의
[**해 서**] 강상두, 김나현, 김남균, 김동열, 김맹호, 김명선, 김병남, 김봉두, 김부기, 김영배, 김영자, 김영주, 김운정, 김원연, 김인주, 김재윤, 김정수, 김정식, 김정완, 김종일, 김주식, 김주하, 김진근, 남택이, 라이선, 류연희, 류충열, 명광재, 문평호, 박명숙, 박명용, 박봉근, 박성재, 박옥병, 박종삼, 박종암, 박종호, 박종효, 박철옥, 박효숙, 반희아, 방경남, 백선희, 백홍재, 서래원, 서현숙, 성락부, 손영철, 송기상, 송상엽, 송선섭, 송영태, 송행관, 신경환, 신기식, 신옥삼, 신정순, 안대순, 안춘덕, 양정남, 오무철, 오병무, 오성복, 유선태, 유정복, 윤상용, 이강윤, 이기원, 이기찬, 이봉근, 이수갑, 이승리, 이영환, 이정식, 이주희, 이진선, 이형석, 이화순, 임미애, 임병윤, 임선희, 임종옥, 임춘택, 장학영, 정문환, 정병조, 정순희, 정영경, 정영회, 정학종, 정해춘, 정현순, 조동일, 조성익, 조여은, 조영희, 조재수, 조재철, 조판제, 조해순, 주단심, 지복률, 천성재, 최앵심, 최현호, 추정수, 한상철, 한성중, 홍대수, 황성룡
[**행초서**] 강신국, 강화남, 공성일, 곽태송, 구종현, 김광태, 김금영, 김기수, 김복규, 김성종, 김숙자, 김순임, 김연자, 김영수, 김영숙, 김영윤, 김용생, 김응배, 김재곤, 김점순, 김종렬, 김종표, 김창용, 김창윤, 김천섭, 김치성, 김태영, 김현식, 김희준, 김희중, 노승덕, 류근재, 류제율, 마철웅, 문영식, 문재현, 민병용, 민종호, 박득채, 박석균, 박승열, 박양현, 박영주, 박오석, 박옥근, 박찬원, 배선덕, 배온희, 백남진, 백복남, 백용채, 서사원, 서지혜, 설광순, 소종석, 손상국, 손원배, 송관용, 송근섭, 송기현, 송덕남, 송래현, 송재우, 신용식, 신중열, 신채식, 안명신, 안종덕, 여양무, 오만심, 오부록, 위종삼, 유영숙, 윤창현, 윤춘식, 이광표, 이군자, 이래영, 이방우, 이상헌, 이석휴, 이성기, 이세라, 이용지, 이운재, 이점순, 이진섭, 임덕자, 임명숙, 임삼순, 임순애, 장영자, 장기숙, 장내명, 전영자, 전영문, 정명섭, 정병연, 정영순, 정정웅, 정종배, 정찬백, 정해옥, 조병연, 조상복, 조양숙, 조영종, 조형석, 주양오, 지왕식, 지환기, 채정임, 최문수, 최종국, 한명규, 한상규, 한연주, 허수영, 홍은옥, 황승연, 황재현
[**문인화**] 김순호, 김철배, 박수인, 박영희, 손정자, 송근영, 정금선